

1994년도 한국농업기계학회 주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공급과 사후
봉사를 위한 토론회』 발표문
(1994. 9. 6.)

농협의 농업기계사업 현황과 방향

신 동 기

농협중앙회 농기계사업단

목 차

1. 농업기계화 사업 개황	13
2. 농협의 농업기계사업 현황	20
3. 농협 농업기계사업의 역할	29
4. 금후 사업 방향	33

1. 농업기계화사업 개황

가. 우리농업·농촌의 현실

UR협상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W. T. O) 체제가 출범하면 우리나라 농업 분야도 무한경쟁이라는 냉혹한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농업·농촌의 장래가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농업의 장래가 불투명 함에 따라 "농사를 계속해야 하나?" "농업 투자를 확대시켜도 되는가?" "어떤 작목을 선택해야 하나?" 등의 문제로 농민의 좌절과 불안감은 농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W. T. O 체제에 대한 새로운 농정시책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감도 팽배해 있다.

농민의 영농 의욕이 상실될 경우 농지의 매물 증가로 소작농가가 급증하고 중고 농기계 증가 및 폐농기계 방치로 농업 기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농업 생산비 중 농기계부문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94. 7 월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총 15조원의 재원을 마련 농어촌에 집중 투자하여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을 전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나, 그런데도 농민들은 UR협상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

나. 농업기계 보급

우리나라의 농업기계 보급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대까지는 재래의 삽, 괭이, 호미, 낫, 쟁기등 인력이나 축력용 소농기구로 농사일을 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소농기구가 개량되고 동력 농업 기계가 부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1년 부터 동력 경운기 및 식량 증산 시책으로 병충해 방제용 동력 방제기와 한해대책용 농용양수기 등의 동력농업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아울러 농용 엔진이 보급됨에 따라 인력 탈곡기가 동력 탈곡기로 개량되는 등 일부 동력농업기계의 보급이 증가 하였으나, 1960년대말까지는 동력농업기계 보급 수량은 미미하였고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여전히 인력이나 축력에 의해서 농사일을 수행하였다.

1972년부터 농업기계화사업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동력경운기를 중심으로 양수기, 탈곡기, 절단기 등 중·소형 동력농업기계가 확대 보급되어 농촌 어디서나 동력농업기계를 쓸 수 있었으며, 동력경운기의 확대보급으로 역우(役牛)가 일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1977년부터 동력이앙기와 바인더, 콤바인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이앙과 수확 작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수도작의 일관기계화 작업체계를 확립하고 노동 Peak를 크게 해소하여 감소되는 농촌노동력을 대체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농촌노동력의 절대적인 감소와 더불어 농업에도 3D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행형의 중·소형 기계의 공급이 감소되고 승용형의 대형 농기계 수요가 < 표1 >에서와 같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 표1 > 년도별 주요 농업기계 보유상황

(단위:대)

구 분	'70말	'80	'85	'90	'93
경 운 기	11,834	289,799	588,962	756,489	799,105
트 랙 터	61	2,664	12,389	41,203	76,800
이 앙 기	-	11,061	42,138	138,405	211,299
바 인 더	-	13,652	25,538	55,575	65,117
콤 바 인	-	1,211	11,667	43,594	67,677
관 리 기	-	-	-	50,699	162,269

'93년말 현재 기종별 농가 보급율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이 경운기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으며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대당 작업일수(시간) 및 작업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농기계 내용연수도 6 - 8년으로 되어 있으나, 신기종 보급 및 정부 보조 지원 확대 등으로 실제 사용연한은 이보다 단축되고 있다.

< 표2 > 주요 농기계 농가 보급율 및 이용현황 ('93년말 현재)

구 분		경 운 기	트 랙 터	이 앙 기	콤 바 인
농 가 보급율 (%)	한 국	50.2	4.8	13.3	4.2
	일 본	62.0	69.0	65.0	40.0
연평균작업일수		55 일	41 일	7 일	13 일
대당 작업 면적		-	15.6 ha	2.7 ha	9.5 ha

다. 농업기계 유통구조

1) 농업기계 유통의 의의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은 생산자로 부터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동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동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유통이라 한다. 구체적 유통활동에는 집하, 포장, 운송, 보관, 하역등이 있고 유통의 역할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시간적, 수량적 차이와 장소적 차이를 조정하는 등 시간적, 공간적, 가치창조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가격조정의 역할과 인적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업기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구조적으로 유통활동에 개입되고 있는 모든 당사자간의 관계로 부터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기계 생산업체간 품질, 가격, 판촉 경쟁과 대리점 상호간 또는 농협과 대리점간의 경쟁과 같이 수평적 관계에서 볼 수 있으며, 수직적 관계의 문제는 농기계 생산업체와 대리점간 또는 농기계 생산업체와 종합 농협 간에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이로 인한 제반 문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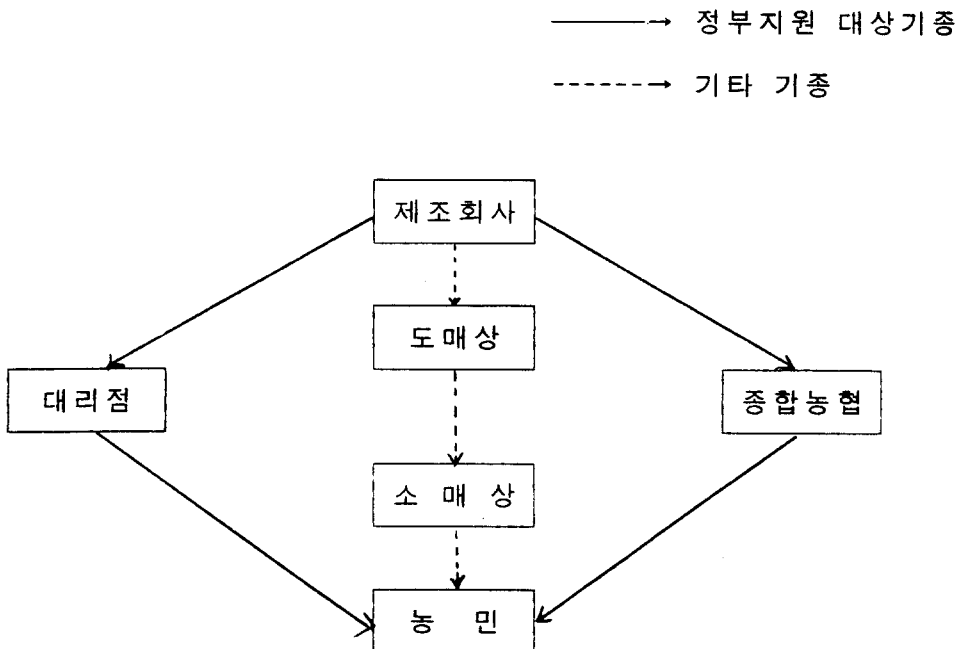
유통과정에서 표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 역시 여러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으며, 흔히 나타나는 경우로서 동종기업 가운데 가장 큰 회사가 업계의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대리점들은 조직체를 결성하여 이를 통하여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상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2). 농기계 유통경로

현재 우리나라의 농기계 유통경로는 <표3>에서와 같이 농기계구입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 대상기종과 일반기종으로 구분되며 융자 및 보조지원대상 기종은 "제조회사→농기계공급농협 혹은 일반대리점 → 농가"의 경로를 취하고 일반기종은 여기에 일반 농기계판매상이 추가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유통주체인 농기계대리점의 특징은 생산업체 계정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 (fee)를 생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이고, 취급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며, 점유권만 보유하게되나 농협과 대동공업 대리점은 자기계정으로 영업을 하고 소유권을 갖는 형태이다.

< 표3 > 농기계의 유통경로



3) 농기계 유통체계의 변천과정

농업기계 유통체계는 그간 많은 변천을 하여 왔으나 그 유형은 크게 나누어 생산업체 (대리점) 일원화, 농협 일원화, 생산업체 (대리점) 및 농협 이원화 체계로 구분된다.

농업기계 유통체계의 변천과정을 연도별로 그 특징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 표4 > 농업기계 유통체계의 변천과 특징

실시 기간	공 급 체 계	특 징
'71 이전	농업단체 중심 체계	농협, 농조 중심체계
'72 - '73	생산업체 일원화 체계	기종별로 2개의 농기계생산업체 지정, 시군단위 생산업체의 판매 대리점이 기대공급
'74 - '76	농협 일원화 체계	농협중앙회가 생산업체와 구매계약 체결하고 시군농협 통해 공급
'77 - '80	기종별 이원화 체계	신보급기종(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은 대리점이, 기타 기종은 농협이 공급
'81-'82.6	전기종 이원화 체계	전기종을 농협과 대리점에서공급
'82.7-84.6	생산업체 일원화 체계	생산업체의 대리점을 통한 민간 주도형 자유판매 제도
'84.7-88.9	전기종 한정적 이원화 체계	농협의 공급물량을 정부의 연간 계획 물량의 40%이내로 제한하고 대리점의 공급물량에는 제한없음
'88.10- 현재	전기종 이원화 체계	유통 및 가격의 자유화로 농협과 대리점의 완전 자유경쟁 공급

라.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 제도

지원대상 농기계는 동력용으로 농업생산에 직접사용되며, 국정검사 합격품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와 품질관리기능을 확보하고 일정기준 이상 국산화된 업체의 제품으로 하되 개별기대의 품질과 사후 관리에 특수성이 있는 농업용 온풍 난방기, 온실용 동력개폐기, 동력 연무기 등은 한국 농기구 공업 협동조합의 품질 보증 제품을 지원대상 기종으로 한다.

따라서, 지원 공급 대상기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생산업체는 상기 조건을 갖추고 판매가격 결정 내역과 함께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 지원대상기종으로 선정 받아야 한다.

융자 및 보조 지원액은 기종별 규격별로 정하되 지원 대상자에 따라 자부담, 융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94년도 지원대상자별 지원 조건은 <표5>와 같다.

<표 5> '94농업기계 지원대상자별 지원조건

지원대상	개소당 사업비	지 원 내 역			
		융 자	보 조	자 담	계
위탁영농회사	95,220천원	40%	50%	10%	100%
기계화영농단 (대규모)	56,490 "	40%	50%	10%	100%
(소규모)	18,830 "				
기계화전업농	22,380 "	60%	30%	10%	100%
일반농가	2,000 "	40%	50%	10%	100%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용자
 취급은 종합농협 및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서 취급하고 있다.

2. 농협의 농업기계사업 현황

가. 농업기계 공급

1) 공급체계

농기계 공급은 농기구서비스센터를 직영하는 종합농협 중 전문기술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별도 승인을 받은 농기계 공급농협에 한하여 정부지원
 대상 기종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체계는 <표6>과 같이 중앙회 계통구매
 또는 종합농협 자체구매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표 6> 기종별 구매 공급 방식

기종별	구 매	공 급	사업 방식
정부지원기종	중앙회	농기계공급농협	중앙회 계통구매
일반기종	중앙회 종합농협	종합농협	중앙회 계통구매 자체구매
농기계부품	도부품센터 종합농협	S.C 운영조합	중앙회 계통구매 조합 자체구매

2) 농업기계 공급 현황

현재의 농업기계 유통구조 아래에서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공급농협과 생산업체의 농업기계 대리점 수의 증감 변화 추세는 <표7>과 같다.

<표 7> 연도별 농기계 공급농협과 대리점 수

(단위:개소)

구 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6
공급 농협	180	227	284	307	331	379	522	614	675	686
대 리 점	640	654	729	741	724	738	709	745	785	859

자료 : 한국농기구조합 및 농협중앙회

<표 7>과 같이 농협의 농기계 공급농협 수는 농기계 공급체계가 대리점 전담에서 농협과 대리점의 이원화 체계로 된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대리점 또한 농기계업체간 자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대리점 조직을 계속 강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87년 부터 1993년 까지의 농협과 대리점의 연도별 농업기계 공급 실적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공급금액기준 농협의 시장점유율을보면 1987년 4.9%에서 1993년 30.9%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공급금액 기준의 시장 점유율이 공급물량기준의 시장점유율에 미치지 못한 원인은 트랙터 콤바인등 중·대형농기계 공급이 대리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특히 '88년 부터 국고 보조로 농협에서 전담 공급한 관리기의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 때문이다.

<표 8> 공급주체별 농업기계 공급량 및 판매액

(단위:대, 억원)

연도별	공급 대 수				판 매 액			
	계	농 협	대리점	점유비	계	농 협	대리점	점유비
'87	104,898	7,808	97,090	7.4%	2,148	105	2,043	4.9%
'88	111,376	17,568	93,808	15.8	2,444	298	2,146	12.2
'89	116,459	28,074	88,385	24.1	2,883	440	2,443	15.3
'90	152,926	44,292	108,634	29.0	4,476	831	3,645	18.6
'91	157,244	61,656	95,588	39.2	5,958	1,340	4,618	22.5
'92	164,259	74,172	90,087	45.2	6,802	1,683	5,119	24.7
'93	191,952	87,427	104,525	45.5	7,261	2,242	5,019	30.9

자료 : "1994년 농림수산부 업무자료"

전반적으로 농협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래 농협은 농기구서비스센터 및 부품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기계공급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4년도는 관리기 공급의 2원화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큰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나. 농업기계 사후봉사

농기계 사후봉사체제는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공급, 부품가격 안정, 양질의 부품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단위 농기계부품센터와 농기계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농기구서비스센터로 나누어 살펴보면,

1) 농기계 부품센터

농협중앙회는 부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 사전 확보 비축하여 적기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부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부품공급 및 시중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농협의 농기구서비스센터·농촌지도소·개별농가 등의 필요한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농기계 부품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9> 농협 도단위 농기계부품센터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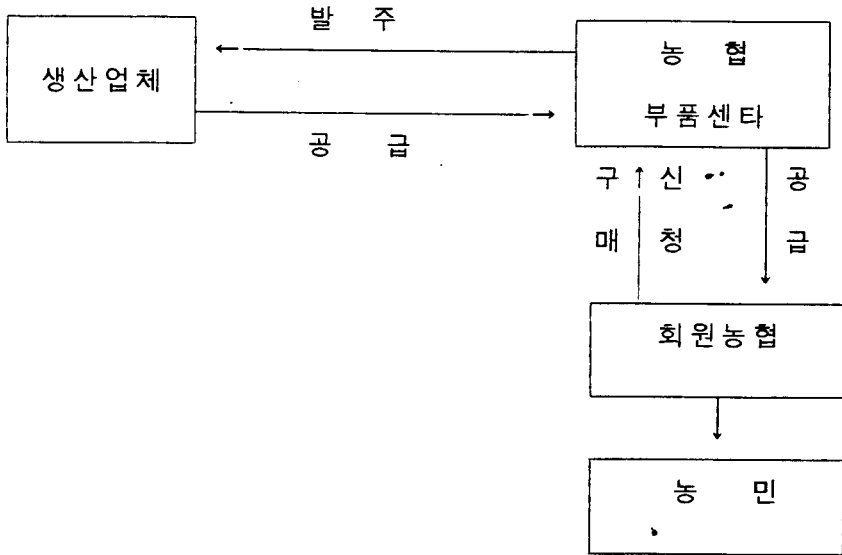
센터수	'91년 설치	'92년 설치	'93년 설치
9개소 (도당 1개소)	4 개소 중앙(서울), 경북 경남, 전남	1 개소 전북	4 개소 강원(명주), 충남 충북, 제주(한림)

<표9-1> 1993년도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실적 (단위:백만원)

부품센터	부품확보액	부품공급액	부품재고액	일일평균공급액
9개소	13,999	8,897	5,102	33

부품센터의 부품공급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부품의 공급절차]



농협 전체 부품센터의 부품확보액은 약140억원에 달하며 개소당 평균 16억원 정도의 부품을 확보하였다. 연간 총 부품공급액은 약 89 억원으로 부품센터당 평균 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품 재고액은 51억원으로 개소당 5억7천만원에 달한다. 1일 평균 부품공급액은 33백만원으로 개소당 4백만원의 부품을 매일 공급하고있다.

'93년도 부품센터 운영에 따른 손실액은 773백만원으로 주 요인은 인건비, 고정 투자비 및 부품 재고 과다에 따른 금리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부품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기계의 고장이 집중되는 농번기에 부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단위 부품센터와 조합서비스센터의 원활한 정보망 구축이 필연적이다.

농기구서비스센터에서는 고장이 잦은 부품만을 확보하고 도단위 부품센터와 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부품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면 수리기간의 단축은 물론 신뢰도 높은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농기구서비스센터

<표10>은 전국 종합농협에서 운영중인 농기구서비스센터의 연도별 설치현황이다.

<표 10> 농기구 서비스센터의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개소)

구분	'86	'87	'88	'89	'90	'91	'92	'93
직영	262	305	327	342	393	567	663	710
임대	430	383	367	348	308	173	89	58
계	692	688	694	690	701	740	752	768

농기구서비스센터 수는 1986년의 692개소에서 1993년말 현재 768개소로 76개소가 증설되었으며, 이중에서 직영센터는 262개소에서 710개소로 448개소가 증가한 반면, 임대센터는 372개소가 감소하였으며 '95년까지 임대센터를 일소할 계획이다.

<표11>은 직영센터의 '93년도 부품확보·공급 및 수리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와 같이 농기구서비스센터의 부품확보액은 약 2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개소당 3천 2백만원에 해당한다.

전체센터의 부품공급액은 약 94억원으로 개소당 평균 1천3백만원에 달하며, 부품의 재고는 전체적으로 136억원으로 개소당 1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 1993년도 직영센터의 부품확보, 공급및 수리실적

구 분	부품확보및공급(백만원)			수 리 실 적 (대)		
	확 보	공 급	재 고	수리	점검	계
전 체	23,076	9,430	13,646	660,774	211,133	871,907
개소당	32	13	19	931	297	1,228

직영센터의 연도별 수리기사 확보상황 <표12 참조>을 보면, 대부분의 센터에서 1명의 수리기사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88년이후 2명 이상의 수리기사를 확보한 센터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93년도말 현재 수리기사 확보 상황을 보면, 전체 710개소의 직영센터 중에서 2명 이상의 요원을 확보한 센터가 294 개소로 41% 이며, 1명의 기술요원을 확보한 센터가 404개소로 전체의 57% 이다.

<표12> 직영센터의 연도별 수리기사 확보현황

(단위:개소)

구 분	'88	'89	'90	'91	'92	'93
2명이상	26	45	80	156	235	294
1명	297	288	301	397	416	404
결원	4	9	12	14	12	12
계	327	342	393	567	622	710

- '93 센터설치.농협수 : 684개소

3) 기술 훈련

현재 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 기술인력의 농기계수리기술 수준을 보면 <표13>과 같이 국가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1,028명 중 789명으로 77% 수준이며 2급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가 539명으로 52%이며 전 기술 요원의 2급 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를 목표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표13> '93 농협 농기구서비스센터의 기술요원 자격현황 (단위:명)

농기계 기능사1급	농기계 기능사2급	농기계 기능사보	농기계 수리경력자	계
32	507	250	239	1,028

그리고, 농기구서비스센터의 경우 수리기사 확보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자체의 농기계 전문기사 육성이 농협 농업기계사업의 신뢰도와 성패에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보면 <표14>와 같이 농협전문대학에 2년제의 농공기술과를 신설하여 '91학년도부터 매년 30명의 학생을 모집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수리기사의 단기 전문기술교육 과정을 동 학과에 병설 운영중이며 금년도는 종합농협 수리기사 110명에 대한 과정별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협은 농기구 서비스 센터 수리기사를 농기계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신기종 및 대형 기종을 위주로 수리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수리기사 633명을 1주간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년도 763명, '94년도 827명을 대상으로 4개업체에서 2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14>농협의 농업기계 수리기사 양성 및 기술지도 체제

(단위:명)

구 분	교 육 기 관	교 육 내 용	94계획
전문기사양성	0. 농협대 농공기술과	0. 2년제대학 정규과정	30
	0. 농협대학 부설 농기계교육단	0. 3주 단기교육으로 수리 기술 보수 교육	120
농기구수리센터 수리기사 교육	0. 생산업체 위탁교육	0. 신기종, 대형기종 위주의 1주간 위탁교육	700
농기구수리센터 보조인력 양성	0. 군지부 단위 집합교육	0. 종합농협 일반직원 중 1 - 2 명씩 실기 교육	1,500
자가수리요원 양성교육	0. 회원농협 주관 기술교육	0. 영농회 단위로 초합원을 선발 농기계 조작, 점검, 간이 수리기술 지도	10,000

다. 농업 기계화 자금 부담

농기계 구입 자금은 연리 5%의 장기 저리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다.

총 대출된 농업 기계화 자금은 2 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농협 자금이 1 조 2 천억원으로 방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은 농민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과 농업 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자금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영농 자금 지원, 농민 편의 사업 확대 등 타 부분의 대 농민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3. 농협 농업기계사업의 역할

가. 구입편의 제공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기계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내구성 농자재이다. 그러나 농기계는 가격수준이 높고, 구입하는데 있어서 기종 선택 등 기술적 및 경제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좋은 농기계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농민 단체인 농협으로서 농업기계화사업에 참여 하는 필요성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 하겠다.

농협의 농업기계사업은 외견상으로는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한 농기계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아 보이나 농협은 생산자인 농민단체이므로 농민을 대표하여 공동구매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일반 상행위와는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와같이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협동 조직으로서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농협의 농업기계 사업은 농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다양한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꼭 필요한 농기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기종선정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사업 참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또한 읍·면단위에 조직되어 있는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기종의 선택, 상담 및 용자관계 등 가까운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모든 구입수속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편리점이 있다.

그리고, 농기계 수요자인 농민은 『좋은 농기계』의 구입을 원한다.

조합원인 농민의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농민의 대표인 농협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좋은 농기계』란 최고의 품질이라는 뜻이 아니고 최적의 품질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농기계의 성능이 우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농민의 경영규모 등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기계 기술요원이나 영농 지도사가, 조합원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성에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으면서 보다 적절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다.

나. 농업기계 가격안정

쌀 생산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농기계이용 비용이 쌀 생산 고비용(高費用)의 주요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농기계 이용비용중 일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내외로서, 이 고정비는 바로 농기계구입가격과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기계 가격의 안정과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위하여 농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에서 미리 농민으로부터 농기계 구입신청을 받아 수요를 결집하여 『예약구매』를 실시 함으로써 생산 업체의 생산 합리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개별 농가의 영세한 수요를 대량으로 결집 실시함으로써 생산업체에 가격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 대상 기종의 경우에는 보조 및 용자 지원 정책과 관련되어 농기계의 구매 및 공급 가격을 생산 업체의 농림수산물 신고가격을 준용하고 있어 농협에서 가격 조정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협 자체 사업으로 구매 공급하는 예취기, 분무기 등 소형 농기계는 구매 가격을 농협에서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 공급하고 있으며 농협 취급으로 시중 유통 가격 또한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지원 대상 기종에 대하여도 정책 변화를 감안하여 가격 검토 및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고장수리 불편 해소

농기계 이용 비용의 92%가 기계의 감가 상각비인데, 사용해야 하는 기간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농기계 이용일수가 적어져 고정비가 증대되는 큰 요인이 된다.

시한영농이 요구되는 경우, 특히 벼재배에 있어서 이앙·수확기의 경우와 같이 농기계 이용일수가 15 - 20 일로 짧으므로 고장수리 기간이 길면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농협에서 읍·면 단위로 농기구 서비스센터를 운영 함으로써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농기계 수리는 생산 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농협이 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 뿐 아니라 사전 점검과 농기계 관리 및 고장방지를 위한 대농민 교육등 고장에 대한 예방 활동으로 고장 횟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장수리에 있어서 수리 일수가 장기간인 기종은 트랙터, 콤파인등 대형기종으로 그 이유는 주로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데 주된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농협의 경우에는 읍·면 단위로 고장이 많이 나는 부품을 확보할 수 있어, 부품 구입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특히 도 단위로 설치된 부품 센터 운영으로 부품 공급상 문제점은 많이 해결되고 있다.

라. 경제적 실익제공

농민이 농기계구입에 있어서 구입선을 정하는 여러가지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사후봉사의 질과 공급 가격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가격은 현재의 농기계 공급 체제 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구입처 결정은 사후봉사의 질에 따른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공급체제 하에서 농협과 대리점간 사후 봉사 경쟁은 결과적으로 사후 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리비 인하 등 농민에게는 경제적 실익이 제공된다고 하겠다.

마. 기술 교육 확산

농업기계는 영농과 밀착된 내구생산재인 동시에 고가이기 때문에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농기계 구입지도 및 구입후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농기계 이용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기간 중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가벼운 고장발생시 즉시 수리가 가능해야 한다. 이것은 농기계이용기술과 고장의 사전예방 및 자가수리기능 확보가 선결문제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에서도 영농과 직결된 농업기계 기술지도, 농기계 이용 및 수리 기술 교육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이 교육을 위한 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4. 금 후 사업방향

가. 농기계 공급 기증 확대

계통농기계 구매계약 대상기종은 매년 정부에서 시달하는 "농기계지원공급요령"에서 정하는 보조 및 융자지원대상 농기계에 대해 생산업체가 농협과의 공급계약을 희망할 경우 전 기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하다.

물론,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농협에서는 계약체결시 업체현황, 가격, 품질등 여러가지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나 정부 보급기종은 국립 농업 자재 검사소의 검사를 거쳐 선정된 것이므로 가능한 취급 기종을 늘려 농민에 대한 농기계 구입 편의를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농기계공급농협을 '96년까지 750개소로 늘리고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설농업 및 축산등과 관련된 신기종 농기계도 점차 확대 취급할 계획이다.

나. 사후봉사 강화

1) 농기구서비스센터 운영 활성화

'96년까지 농기구서비스센터를 현재 716개소에서 800개소로 확대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종합농협의 합병과 연계하여 경제권 중심으로 종합정비형센터 300개소를 집중 육성시켜 지역단위 기계화센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부품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하며, 늘어나는 자동차 보급추세에 따라 자동차 간이정비 업무도 병행시켜 나가야 한다.

영농기 급증하는 농기계 수리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부족한 기술인력은 군부대 지원인력을 서비스센터에 파견 근무토록 관계 부처와 협조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실시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농기계 수리기술 인력 양성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협대학 농공기술학과에 30명의 정규과정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농협대학내 농기계교육단에서 단기과정으로 현재 110명에서 '96까지 200명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기종에 대한 새로운 기술 습득과 일반 기종에 대한 보수 교육을 위하여 4대 생산 업체에 위탁 교육을 매년 2회로 나누어 실시 700명씩 교육시켜 나갈 계획이다.

영농기 부족 인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종합농협의 일반 직원에 대하여도 농기계운전 및 간이정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조합당 1- 2명씩 선발 군단위로 1주일씩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까지 5,000명을 육성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고장을 줄이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회별로 농기계 조작 및 수리 기술에 소양이 있는 농민 1명씩을 선발하여 '95년까지 40,000명을 마을단위 농기계자가수리요원으로 육성시켜 농번기S.C 수리인력 부족난을 해소시켜 나가도록하고 이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3) 원활한 부품공급

도단위 부품센터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부품종수를 확대시켜 공급량을 '96까지 130억원으로 늘리고, 부품센터 차량을 이용하여, 종합 농협에 순회공급함으로써 서비스센터는 수리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

또한 종합정비형센터에서의 보유 부품재고를 늘려 농기계 사후봉사의 질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